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6년 8월 21일(금)
(음력 7월 9일)
Пятница
21 августа 2026 г.
№ 33 (12200)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8월 22일은 러시아 연방 국기의 날로 기념한다.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존경하는 사할린과 쿠릴열도 주민 여러분!

8월 22일은 러시아 연방 국기의 날로 우리는 중요하게 이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기의 삼색은 공동체를 하나되게 하는 상징입니다. 혼란의 시대에 국가를 수호하고, 나폴레옹의 침략과 대조국전쟁의 시기를 지켜낸 무수한 우리 선조들의 군사적, 평화적 공로를 상징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고, 효율적인 경제를 구축하며, 포괄적인 사회지원시스템을 조성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들의 과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국에서의 삶을 더욱 편하게 조성하여 자녀와 손주들을 위한 바람직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군사작전 지역의 장병들과 후방에 있는 그들의 가족을 도우며, 러시아를 수호하고, 발전시켜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기의 날을 맞아 동포 여러분에게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과 강건함과 번영과 후방에서 조국의 안녕을 위한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러시아 연방 국기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슘슈섬 연례 상륙작전 기념행사에 참석

쿠릴열도 상륙작전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군의 마지막 승리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이 지역 방문 기간 동안 〈쿠릴열도 상륙작전의 발자취를 따라〉국제 탐색대의 활동 결과를 점검했다. 올해 탐색대에 러시아 25개 지역을 비롯해 에스토니아, 벨라루시에서 온 탐사대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이들은 기호가 달린 병사들의 개인물품과, '레몬'수류탄, 소련 박격포탄, 아리사카 소총 탄피, 모나신 소총 탄피를 발굴했다.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군국주의 일본으로부터 승리한 지 81주년이 곧 다가오고 있다. 쿠릴열도 상륙작전이 시작된 날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던 슘슈섬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 우리 소련 공수부대는 공격을 감행하고, 적을 섬멸하여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켰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쿠릴열도에서 소련군의 영웅적 공로를 대대로 기리기 위한 대규모 활동을 펼치고 있다. 슘슈섬에는 야외 박물관이 건립되었고, 국제 탐색대가 활동 중이다. 지금 우리는 무명 용사의 유해를 안장하고, 그들의 유물을 발굴했다. 이 땅이 러시아 땅에 속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과 평화로운 하늘 아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무명용사들은 가장 소중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었다. 우리는 선조들이 전투하여 얻은 한 뼘의 땅도 내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올해 상륙작전 기념행사는 소련의 영웅 표트르 이와노위치 슈토브의 아들 안드레이 페트로위츠와 손자 키릴 슈토브의 방문으로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1945년8월 18일 표트르 이와노위츠 슈토브의 지휘 아래 공수부대는 코쿠탄사키 곶 구역에 있는 슘슈섬에 상륙하여 첫 상륙부대의 기동전을 위한 조건을 마련했다.

표트르 슈토브의 손자이자 탐색대원인 키릴 슈토브는 아버지 안드레이 페트로위츠가 79세에 처음으로 슘슈섬 방문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자신은 49년간 슘슈섬 방문을 꿈꿔오던 중 마침내 탐색대원과 함께 오게 되었다고 말했다. 키릴은 사할린의 영웅인 할아버지 표트르 이와노위츠 슈토브가 쓴 책을 자신도 여러 번 읽었다며 그 책에는 표트르 일리쵸브의 공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슘슈섬에 있는 표트르 일리쵸브의 묘지 앞에 지금 그들이 서 있다고 했다.

(3면에 계속)

새고려신문

2026년 하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6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 개월** 구독료는 **147,66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단신

사할린, 2003년 헬기 추락 사고 희생자 추모식 열려

지난 20일(목) 유즈노사할린스크 워스크레센스키 성당 마당에서 2003년 8월 20일 헬리콥터 추락 사고의 희생자인 이고리 파르후트디노브 전 사할린주지사와 주정부 임원, 승무원 등 20명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다.

추모식에 니카노르 유즈노사할린스크 및 쿠릴 대주교가 집도하는 추도예배와 헌화가 진행되었 고,이에 알렉세이 벨리크 사할린주 정부 총재를 비롯한 유족과 지역인사들이 참배했다. 파르후트디노브 주지사는 사할린-1, 사할린-2 석유가스 프로젝트 추진 등 지역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이투루프섬에 구급차 긴급 보급

지난 8월 19일(수) 이투루프섬에 의료진을 위한 특수 구급차가 도착했다. 이는 지난 8월 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섬을 방문한 지 불과 6일 만에 초고속으로 구급차 문제가 해결되었다. 리마렌코 주지사의 지시로 유즈노사할린스크 구급센터의 비축 물량에서 사륜구동 구급차 1대가 배정되었다.

사할린주, 축산업 발전 공로로 극동지역 3위에 진입

사할린주가 2025년 축산업 결산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극동연방관구 젖소의 우유 생산과 돼지 사육두수 부문에서 3위를 차지했다. 방목 사육 젖소 1마리당 우유 생산량은 7,316kg을 기록하며 2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산란계의 산란율 부문에서는 지난해 기준 328개를 기록하여 극동지역에서 1위에 올랐다.

유명한 범선 '나제즈다'호, 최초로 사할린주 모네론섬 입항

전설적인 훈련용 범선 '나제즈다'호가 처음 공식 항로로 모네론섬과 추프로브만에 닻을 내렸다. 선박에는 해상 훈련 중인 사관생도 100여 명과 관광객 12명이 탑선했다.

승객들은 폭포와 해식동굴, 큰바다사자 서식지, 크라스나야산 고대 성지 등을 탐방했다. 특히 사관생도들은 폭풍으로 밀려온 해안가의 해양 쓰레기를 전량 수거하는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나제즈다'호는 일정을 마친 후 동방경제포럼 참가를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한다.

돌린스크 제빵공장, 〈러시아 최고의 빵〉전국 경연대회서 2관 달성

돌린스크 제빵공장이 〈2026러시아 최고의 빵〉 전국 경연대회에서 사할린주 대표로 출전해 두 개의 권위 있는 상을 받았다. 이 공장의 대표제품인 '10가지 곡물빵'으로 영예의 대상을 받아 '대형 컵'을 수상했고, 두 번째 상으로 '잘리브노이'빵을 전문가 심사위원단이 호평한 가운데 3등 '소형 컵'을 수상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광복 81주년 기념행사 성화리에 개최

지난 8월 16일(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유리 가가린 시립공원 내 '코스모스' 경기장에서 광복 81주년 기념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과 관광객 수백 명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축제는 사할린주한인협회가 주최하고 사할린주 정부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행정부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 주지사, 세르게이 나드사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시장, 게오르기 카를로브 국가두마 의원,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 국장현 소장, 사할린주 사회원 블라디미르 이콘니코브 위원장 등 주요 귀빈들이 참석했다.

축사에 나선 리마렌코 주지사는 광복절이 사할린과 쿠릴열도 해방의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며, "우리는 이날을 한 가족으로서 기념한다. 사할린 한인들은 우리 도시와 마을 발전에 막대한 기여를 해왔다. '러시아 민족 단결의 해'인 올해는 우리가 러시아의 한가족이라는 점을 특별히 기억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나드사진 시장은 현재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 약 2만 명의 한인 디아스포라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나드사진 시장은 이날 박 웨니아민 시의회 의원에게 '러시아 연방 국방력 강화에 기여'로 메달을 수여했다.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은 한반도 해방을 위해 싸운 참전용사들과 온갖 역경을 견뎌내고 새로운 세대를 키워내신 부모님 세대에 감사하는 날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박 회장은 "우리는 이곳에서 단순히 살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함께 집을 짓고, 아이들을 키우며,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본격적인 문화 행사에서는 지역 예술단들이 한민족 전통문화를 비롯해 러시아, 북방 소수민족 원주민 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다.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소속 '하늘' 타악기 팀, '희망' 무용단, 보컬그룹을 비롯해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의 '진달래', '개나리' 무용단, 민속무용단 '에크조티카', '의흐 미프' 민족문화센터 무용단, 브레이킹 연맹 댄서들이 화려한 무대로 관람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음악 반주는 사할린 러시아 민속악기 오케스트라가 맡아 풍성함을 더했으며, 태권도협회 소속 유소년 선수들의 시범 공연도 축제의 흥을 한층 돋웠다.

행사 참가자들을 위해 풍성한 문화·체육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경기장 내에는 사할린주 태권도협회와 사할린주 씨름협회가 운영하는 태권도 및 전통씨름 체험 부스가 설치됐으며, 한식 요리교실도 열려 참가자들이 국수, 뺘세(왕만두), 찐빵, 떡 등 사할린 한인들의 다양한 요리의 맛을 즐겼다. 또한 전통 한민족 놀이인 윷놀이와 공기놀이 체험 공간이 조성돼 많은 이들이 축제를 즐겼다. 이외에도 성인과 어린이를 위한 공예교실이 열려, 올해는 특히 전통 한국 매듭공예와 부채 그림 그리기를 직접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오늘날 한민족 문화는 사할린주의 다민족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이러한 축제들은 오랜 전통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차세대에게 민족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세대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문화유산을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가치로 만들어가고 있다.

(취재: 배순신 기자와 드미트리 포구다예브 통신원)

이모저모

유즈노사할린스크, 유치원 접근성 덕분 〈러시아의 가정 중심지〉경연 결승에 진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정부가 학령 전 모든 연령대의 아동 100%가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생후 18개월부터 8세까지 아동을 위한 유치원 대기명단을 모두 처리한 덕분에 우수 도시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이는 새로운 유치원 건축과 유치원 간 활성화된 연결망 확대를 통해 유치원생들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었다. '고리존트(수평선)'주택단지에서는 이미 240명을 수용하는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고, '우윤공원'주택단지에는 29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유치원이 건설 중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추진하는 전국 〈러시아의 가정 중심지〉 경연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인구 10만 명이 넘는 52개 도시들이 '최고'라는 명분을 두고 경쟁을 치렀고, 최종 우승을 차지할 도시는 올가을에 발표될 예정이다. 평가 전문가들은 사회적 제반시설 확충 수준, 교육 및 의료의 접근성, 대중교통 운영의 품질, 가정정책의 효율성, 주택건설의 여건과 속도 등을 평가했다.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은 유즈노사할린스크가 러시아의 가정적인 우수 도시들 중 하나로 선정된 것은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해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환경을 조성한 체계적인 작업의 결과라고 강조하며, 도심에 사회적 제반시설을 확충시키고, 새로운 학교와 유치원을 건설하며, 사회적 공간을 개선하고,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하도록 하여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청년 가정이 살며, 일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싶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요한 심사평가기준은 사회적 시설의 교통 접근성이었다. 현재 유즈노사할린스크 지역 대중교통의 94%가 유모차를 이용하는 부모를 포함에 거동이 불편한 승객들을 위해 설계되었다. 이와 함께 도시에 고품질의 아파트 건설량이 증가하면서 가족 편의시설을 갖춘 고품질의 아파트 32동이 2025년에(지난해에는17동 완공) 운용되었다. 모든 신규 주택단지에서는 주택가 마당과 놀이 및 스포츠 시설 정비가 이뤄졌고, 아파트 건설과 함께 여러 신규 주거지역에 유치원과 사회적 시설이 신설되고 있다.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тал финалистом конкурса «Семейная столица России» благодаря доступности детсадов

Город ликвидировал очереди в дошкольные учреждения для детей от полутора до восьми лет и вошел в десятку лучших.

Власт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беспечили 100% доступность дошко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для всех возрастных групп. Подробности опубликовали в ТАСС. Максимального показателя удалось достичь благодаря строительству новых зданий и расширению действующей сети учреждений. Так, в жилом комплексе «Горизонт» уже работает детский сад на 240 мест. А в ЖК «Уюн парк» продолжают строить еще одно дошкольное учреждение на 290 мест.

Всероссийский конкурс «Семейная столица России» проходит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В этом году за звание лучшего боролись 52 города с населением более 100 тысяч человек. Победителя объявят уже этой осенью. Эксперты оценивали участников по следующим критериям: уровень развития социаль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доступность образ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качество работы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эффективность семейной политики, темпы и условия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Мэр город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выход в число лучших семейных городов России — это результат системной работы по созданию комфортной среды для семей с детьми. Он отметил, что в городе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развивают социальну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строят новые школы и детские сады, благоустраивают общественные пространства, повышают доступность транспорта и создают условия, чтобы молодые семьи хотели жить, работать и воспитывать детей именн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ажным критерием оценки стала транспортная доступность социальных объектов. Сейчас 90,4%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испособлено для перевозки маломобильных пассажиров, включая родителей с детскими колясками.

Параллельно в городе растут объемы строительства качественного жилья: 32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а с семей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ой ввели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в 2025 году (для сравнения: годом ранее сдали всего 17 домов). Благоустроенные дворы, детские и спортивные площадки есть во всех новых жилых комплексах. Школы, детские сады и социальные объекты возводят в нескольких новых микрорайонах одновременно со строительством жилых домов.

유즈노사할린스크 〈라즈곤〉 익스트림 축제, 수십 명 모여

8월 15일 가가린 시립공원에서 〈라즈곤〉 익스트림 축제가 개최돼 활동적인 생활방식을 추구하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스턴트 킥보드와 자전거 모토크로스 종목에서 경기를 치렀고, 축제 참석자들은 익스트림 스포츠인들의 경기를 볼 뿐만 아니라 음악을 즐기기도 했다.

방문객들을 위한 '카드로'상 우승자들의 DJ공연과 '플라스틱 교환' 비닐 마켓도 열렸다.

경기 후 우승자와 수상자들이 발표되어 우수 참가자들은 축하와 함께 새로운 도전을 기대했다.

Десятки участников собрались на экстрим-фестивале «Разгон»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имени Гагарина 15 августа прошел экстрим-фестиваль «Разгон», объединивший десятки любителей активн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Участники соревновались в дисциплинах на трюковых самокатах и BMX. Гости фестиваля могли не только наблюдать за выступлениями спортсменов, но и провести время под музыку.

Для посетителей организовали диджей-сеты от победителей премии «Кардо», а также виниловый маркет «Смени пластинку».

По итогам соревнований определили победителей и призеров. Лучшие участники получили поздравления и пожелания новых достижений.

국민기획의 일환, 유즈노사할린스크 옐란카 강변 청소에 100명 이상 참가

유즈노사할린스크 옐란카 강변과 물가에서 대규모 환경정화 활동이 진행되었다. 이 활동은 사할린주 '폐기물처리관리국'과 함께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발전부가 공동으로 숍보트닉(토요 청소)을 조직했다.

환경정화 활동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주도하는 〈자연환경보호적 번영〉 국민기획인 〈러시아의 물〉연방기획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8면에 계속)

미 로체스터대 박사과정 중인 구범모씨, 사할린 한인 역사 연구차 사할린 방문

고려인과 사할린 한인을 아우르는 '소련 한인' 역사를 연구 중인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 박사과정의 구범모 씨가 현지 동포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직접 듣기 위해 지난 8월 8일부터 25일까지의 일정으로 사할린을 방문 중이다.

대구 출신인 구범모 연구원은 서울대학교에서 러시아 역사를 전공하며 학사와 석사 학위를 마친 후, 미국 로체스터 대학으로 건너가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구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대학의 박사과정은 6년인데, 첫 3년간 수업을 이수하고, 이후 3년간 논문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논문 작성 2년 차에 접어든 그는 마지막 한 학기만을 남겨두고 있다. 2년 전 논문 집필을 시작하면서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소련 지역 및 러시아 현지 조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한국으로 귀국해 활동해 왔다.

이미 중앙아시아 고려인 연구를 거의 마무리한 구 연구원은 지난해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고려극장과 고려일보의 옛 자료들을 심층 조사했다. 또한 한국 내 사할린 영주귀국자들을 만나 구술 자료를 수집하기도 했다. 이번 사할린 방문은 이를 바탕으로 소련 한인 역사의 또 다른 축인 사할린 한인의 역사를 보완하기 위함이며, 특히 1940~1950년대 조선학교 재학 시절의 경험담 채록에 집중하고 있다.

"현장을 직접 돌아보고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구 연구원은 사할린 체류 기간 동안 한인 1·2세들을 두루 만나 구술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또한 사할린 한인 역사 전문가인 진 율리아 박사를 비롯해 현지 한인 동포 사회단체 관계자들을 면담했으며, 새고려신문사와 우리말 방송국을 방문해 연구 협력을 논의했다.

(배순신 기자)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슘슈섬 연례 상륙작전 기념행사에 참석

(1면의 계속)

키릴의 말에 따르면 일리쵸브는 당시 18세였고, 가슴으로 벙커의 포문을 막아섰을 때 니콜라이 윌코브와 함께 다시 포문을 막아서며 알렉산드르 마트로스의 영웅적 희생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한다.

키릴은 탐색대의 활동과 벙커 및 역사센터가 주도하는 레이더 기지 복원 작업이 중요하다고 강하게 덧붙여 말하며, 그것을 통해 청년들이 당시 슘슈섬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부터 슘슈섬에는 러시아에서 독보적인 군사 역사 추념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이 기획의 일환으로 슘슈섬 구역에 야외 박물관이 건설되고 있고, 전문가들이 요새시설을 복원하고, 발굴한 군 장비들을 보존하고 있다.

올해도 러시아 연방 문화부와 현대역사센터가 역사적 유물 보존 작업을 계속했다. 새로이 전시된 유물들 중에는 일본군 포병 견인차, B -13 130mm 함포, 지하요새시설, 두 개의 일본군 토치카, 콘크리트 장갑 캡, 철근 콘크리트 항공기 격납고 등이 전시되었다.

'현대역사 학술연구센터의 소장 이완 아노힌의 말에 따르면 슘슈섬에는 러시아와 세계 어디에도 없는 탱크가 보존되어 있고 섬 남부 파라무쉬르섬에서 가까운 바이코워 마을 근처에는 과거 일본군 사령부가 주둔해 섬을 방어했던 카타오카 비행장이 남아있다. 오늘날까지 전후에 퇴역하거나 손실된 항공장비의 조각들이 있는데 특히 전쟁시기와 전후에 소련군이 운용했던 미국의 '킹코브라 전투기와 '벤투라' 폭격기가 대표적이다. 현재 이 비행기들은 일반 방문객들에게 개방된 항공기 격납고에 전시되어 있다.

역사적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워인'센터는 사할린주 정부의 지원으로 슘슈섬에 소련군 171고지 공격을 재현한 장애물코스를 설치했다. 사관생도들과 청년연합단체의 대표들이 이 장애물코스를 완주했으며, 행사를 기념하여 〈여행 그 이상〉 로스몰로죠쥐 기획의 참가자들로서 러시아 전역에서 온 청년활동가들과 특수군사작전의 참전용사들이 참가했다. 기념행사 후 주최 측과 참가자들에게 1945년 쿠릴열도 상륙작전의 기억 보존에 기여한 공로로 상을 수여했다.

국악신문 사할린 동포사회에 한복 전달… "20년 묵은 한복, 새 옷으로 갈아입고 싶다"

동포사회에 새 한복 전달된다
이병일 전 사할린한국교육원장, (주)국악신문에 편지 전달…
박수식 현 원장이 한국서 사할린까지 직접 운반

사할린 동포사회로부터 한복을 보내달라는 편지가 8월 초 국악신문에 도착했다. 편지를 전달한 이는 이병일 전 사할린한국교육원장으로, 2020년 부임 시부터 현지 사할린 한인사회와 소통해 왔기에 동포들의 딱한 사정을 알려온 것이다.

편지에는 다음 달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리는 러시아 민족축제에서 현지 한인사회가 거리 퍼레이드나 시(市) 홍보 행사 부스에 함께 참여할 예정이지만,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한복이 20년 전에 마련된 것이어서 색이 바래고 칙칙해졌으며 유행이 지난 상태라는 사연이 담겼다. 오랜 세월 동포사회의 자긍심을 지켜 온 한복이지만, 세월의 흔적까지는 감출 수 없었던 셈이다.

편지를 보낸 김경순(2024년 KBS한민족방송 체험수기 대상 수상자) 여사는 "한복은 우리에게는 부모님의 고향입니다. 처음 입어보는 동포들에게는 '코리아'라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사할린에는 한복을 처음 입어보는 동포들이 많아요."라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주)국악신문(대표 기미양)은 곧바로 한복 마련에 나섰고, 박수식 현 사할린한국교육원장이 한국에서 준비한 한복을 직접 사할린까지 가지고 가기로 했다.

다음 달 유즈노사할린스크 축제에서 사할린 한인사회는 새로 마련된 한복을 입고 거리 퍼레이드에 참여할 예정이다. 낡고 색바랜 한복 대신 밝고 화사한 색동을 두른 동포 가족들이 모여 할아버지와 손주가 함께하는 3대의 모습이 이역만리 사할린 거리를 수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3일에는 송파구 코너 호텔에서 한복 기증식이 이루어졌다.

박수식 현 사할린한국교육원장은 "사할린 한인사회는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된 이들의 후손들이 뿌리를 이루고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고 계승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조국과의 교류가 사실상 막힌 상황에서 한복은 단절된 한·사할린 동포사회를 잇는 새로운 문화적 가교가 될 수 있다. 사람이 오갈 수 없다면 문화가 먼저 오가고, 문화가 이어지면 기억과 정체성도 이어진다. 한복 한 벌이 사할린 동포들에게 조국을 다시 만나는 매개가 되고, 차세대에게는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는 문화유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주)국악신문은 오는 12월 초 박 원장의 한국 방문 시에도 사할린에 한복을 기증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4년 임기 동안 한복 전달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국악신문 기미양 대표는 2016년 제1회 사할린아리랑축제부터 (사)아리랑연합회와 함께 사할린과 고려인, 중국·미국 동포사회에 한복을 기증해오고 있다.

(주)국악신문은 새고려신문이나 사할린한국교육원에 한복이 필요한 사연을 보내면 한복을 기증하기로 해오고 있다.

(국악신문 기미양 기자)

연해주 독립 유공자를 찾아서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러시아지역 독립유공자

현재 한국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는 노령계열 175명이며 그중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독립유공자 137명이다.

김 학

관리번호	950478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성명	김 학	한자	金 鶴
이명	없음	성별	남
생년월일	(1894)	사망년월일	(1923)
본적	함경북도 회령		

공훈록

함북 회령(會寧) 사람이다.

1920년 봉오동전투(鳳梧洞戰鬪)·청산리전투(靑山里戰鬪) 등에서 독립군에게 참패를 당한 일본은 대대적인 한국 독립군 토벌을 목적으로 그해 4월과 10월에 걸쳐 이른바 4월참변과 간도토벌(間島討伐)을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과 연해주 등지에 있던 한국 독립군 부대들은 일본군의 토벌을 피해 이만을 거쳐 볼세비키가 장악하고 있던 노령(露領) 자유시(自由市; 스보보드니, 혹은 알렉세예프스크)에 집결하였다. 1921년 3월까지 자유시에 집결한 한인독립군부대는 노령지역의 김 표도르 등의 이만군대, 최 니콜라이의 다반군대, 박 그레고리 등의 독립단(獨立團), 임호(林虎)와 고명수(高明秀)의 한인니항군대(韓人尼港軍隊; 후일 사할린의용대로 개칭, 일명 사할린부대), 오하묵(吳夏默)과 최고려(崔高麗) 등의 한인보병자유대대(韓人步兵自由大隊, 일명 自由大隊)와 간도지역의 최진동(崔振東) 등의 총군부(總軍府), 안무(安武) 등의 국민회군(國民會軍), 홍범도(洪範圖) 등의 독립군, 서일(徐一) 등의 군정서(軍政署) 등이었다.

당시 자유시는 이르쿠츠크파의 문창범(文昌範) 등이 이끄는 대한국민의회(大韓國民議會)가 극동공화국(極東共和國) 인민혁명군(人民革命軍) 산하에 한인보병자유대대를 조직하고, 오하묵을 대대장에 임명하고 군을 통솔하고 있었다. 따라서 1920년 10월 한인니항군대의 자유시 도착후 이르쿠츠크파의 대한국민의회와 극동공화국 한인부를 장악하고 있던 이동휘(李東輝) 계열의 상해파(上海派) 간에 니항군대의 자유대대 편입문제와 군통수권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났다. 즉 문창범 등이 한인독립군부대를 자유대대 산하에 편입하였던 데 대해 이동휘 계열의 박애(朴愛) 등은 극동공화국 군부와 교섭하여 니항군대를 사할린의용대로 개칭하고 자유시에 집결한 모든 한인독립군부대를 관할 아래 두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이동휘 계열의 한인부에서 임명한 연대장 그레고리예프와 군정위원장 박 일리아는 종전 문창범 등이 자유대대에 편입시켰던 니항군대와 다반군대를 마사노프로 이주시키고 간도지역 독립군부대 역시 강제 이주시켰으며, 불응하는 자유대대 장교들을 니항군대와 다반군대로 하여금 체포 혹은 무장해제시켜 지방수비대로 강제 편입하였다.

이에 따라 자유대대의 오하묵·최고려 등도 이르쿠츠크에 있던 코민테른 동양비서부와 교섭하여 임시고려혁명군정의회(臨時高麗革命軍政議會)를 조직하고 총사령관에 갈란다라시윌린, 부사령관에 오하묵, 군정위원에 김하석(金夏錫)·채성룡(蔡成龍)을 임명하였다. 1921년 6월 6일 자유시에 도착한 갈란다라시윌린은 7일 자유시의 전 부대를 소집하여 자신이 고려혁명군정의회의 총사령관임을 선포하고, 8일 박 일리아에게 군대를 인솔하고 자유시에 출두하라고 명령했다. 1921년 6월 27일 사할린의용대 연대장 그레고리예프가 투항하자, 6월 28일 총사령관 갈란다라시윌린은 자유시수비대 제29연대를 파견하여 사할린의용대의 무장을 해제하도록 하였으나, 사할린의용대가 불응하자 공격명령을 내려 무장해제를 단행했다. 이 전투 끝에 무장해제를 당한 사할린의용대는 전사자·도망자를 제외한 864명 전원이 포로가 되었으며, 이것이 이른바 자유시참변(自由市慘變)이다.

1919·1920년 의군부(義軍府) 장교로 활동하던 그는 1921년 6월 자유시참변 당시, 러시아 적군(赤軍)에게 체포되어 이르쿠츠크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다 1923년 경 순국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朝鮮日報(1923. 6. 24)

묘소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편집 이철수)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метили День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16 августа на стадионе «Космос» в парке имени Ю. Гагарина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стоялись праздн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свящённые 81-й годовщине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 ни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несколько сотен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Главным организатором праздника выступила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РООСК)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 празднике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депута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Георгий Карлов, глав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канцеляр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Кук Чан Хён и другие официальные лица.

Обращаясь к собравшимся, губернатор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День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неразрывно связан с историей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которые также были освобождены в августе 1945 года: «Мы празднуем этот день как одна семь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несли огромный вклад в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наших городов и сёл. В Год единства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особенно важно помнить, что мы – единая российская семья».

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отметил, что сегодня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проживает около 20 тысяч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которая стала неотъемлемой частью культурного кода города. Он также вручил депутату городской Думы Вениамину Паку медаль «За вклад в укрепление обор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назвала праздник днём благодарности воинам-освободителям и родителям, которые выстояли и воспитали новые поколения. «Мы здесь не просто живём. Мы строим дома, растим детей и строим планы на будущее», – сказала она.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представили выступления, отражающие многогранность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Своё искусство ярко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коллективы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ансамбли барабанов «Ханыль», танца «Химанг» и вокальная группа), а также ансамбли танца «Чиндалле» и «Кенари» ДШИ «Этнос». Также выступили Заслуженный коллектив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ансамбль танца «Экзотика», ансамбль этно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Люди Ых Миф», танцоры Федерации брейкинга. Музыкальное сопровождение обеспечивал Сахалинский оркестр русских народ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Всех покорили показатель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юных спортсменов Федерации тхэквондо.

Для гостей праздника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насыщенная культурно-спортивная программа. На стадионе работали площадки областной Федерации тхэквондо и традиционной корейской борьбы ссирым, а также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хне, где все желающие могли попробовать куксу, пянсе и корейские сладости. Кроме того, были организованы площадки для традиционных корейских игр – ютнори и конги нори, где каждый мог попробовать свои силы в этих древних забавах. Для детей и взрослых провели также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му искусству. В этом году участники могли освоить традиционное корейское узелковое искусство и попробовать себя в росписи веера.

Сегодня корейская культура является неотъемлемой частью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й жизн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кие праздники не только помогают сохранять традиции, но и знакомят с ними подрастающее поколение, а поддержка подоб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укрепляет живую связь между поколениями, делая культурное наследие доступным и важным для всех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Дмитрий Погудаев)
(Фото: Дмитрия Погудаева, пресс-службы ПСО)

---

20 августа очередная годовщина трагической гибели губернатора Игоря Фархутдинова (1950-2003). В командировке на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губернатор с командой коллег и экипажем разбился на вертолете.

Сахалинцы хранят Память о народном губернаторе.

«Наполни смыслом каждое мгновение»

Тамара Даниленко о народном губернаторе Игоре Фархутдинове

- С Игорем Павловичем Фархутдиновым сотрудники област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и познакомились близко в 1991 году, когда его назначили главо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и председателем горисполкома. Вскоре мы поняли: пришёл руководитель новой формации - ответственный,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й и, самое главное, готовый учиться управлению в критических условиях, а потому постоянно испытывавший потребность в н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Это был перв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на Сахалине, который увидел в библиотеках не иждивенцев, а помощников. Он активно использовал весь потенциал СахОУНБ. Заглянув в его читательский билет, вы поразитесь широте и глубине интересов: деятельность высши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вопросы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опыт решения социальных проблем в стране и за рубежом, этика… Перечисление всех запросов губернатора И.П. Фархутдинова заняло бы несколько страниц. Он не боялся задавать каверзные вопросы, интересовался всем, докапывался до сути дела. Неудачи не вышибали его из седла, а только подзадоривали. Проигрывать он не любил. И чего-то не знать тоже не в его характере…

Если бы все руководители обладали такой жаждой к постоянному росту, само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ю, они бы изменили отношение к библиотекам. Фархутдинов считал, именно в них сосредоточен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й потенциал нации. И роль библиотек в эпоху, требующую все больше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кадров, должна возрастать.

(Продолжение на 5-ой странице)

Генеральному директору
АО «Авиакомпания «Аврора»
Господину Сухоребрик К.П.

О возобновлении прямого авиасообщения между Сахалином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Уважаемый Константин Петрович!

От имен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как на Сахалине, так 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желаем Вашей авиакомпании «Аврора» успехов и процветания.

Как Вам известно,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живают более 25 тысяч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у которых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проживают родители, дети, внуки, родные и близкие.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также проживают около 5 тысяч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у которых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живают дети, внуки, родные и близкие.И все они, особенно лица преклонного возраста, испытывают огромные трудности в поездках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и обратно на Сахалин с пересадками в третьих странах из-за отсутствия прямого авиасообщения между Сахалином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з-за этих трудностей большинство лиц преклонного возраста многие годы, с начала пандемии, не могут прилететь на Сахалин для встречи со своими детьми, внуками, родными и близкими.

На наше обращение президенту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господину Ли Чже Мен от 25 сентября 2025 года по вопросу открытия прямого авиасообщения между Сахалином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ей мы получили следующий ответ от Министерства земл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транспор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т 21 октября 2025 года:

«Мы хотели бы сообщить Вам, что *наше Министерство планирует рассмотреть вопрос возобновления прям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авиарейсов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Россией путём консультаций с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включая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исходя из будущих событий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рене».*

Мы искренне считаем, что открытие прямого авиасообщения между Сахалином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существенно улучшит качество жизни многих граждан, обеспечит доступ к медицинским услугам, семейным встречам, культурному обмену и укрепит социальные связи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ея, Сахалином и Россией в целом, станет значительным шагом вперёд в нормализации и построении дружественны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народами наших двух стран.

Мы искренне надеемся на Ваше понимание, поддержку и готовность рассмотреть нашу просьбу по открытию прямого авиасообщения между Сахалином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включая возможные чартерные рейсы, и оказать содействие в положительном решении этого вопроса.

Желаем Вам доброго здоровья, благополучия и успехов.Благодарим Вас за внимание.

С уважением,
Председатель НКО «Ассоци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о Ен Сун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г. Кимпо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ак Но Ени
10.08.2026.

В Корее почтили память генерала Хон Бомдо

15 августа, в День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на Национальном кладбище в Тэджоне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посвященная пятой годовщине возвращения праха генерала Хон Бомдо на Родину.

Пять лет назад была исполнена последняя воля генерала: после долгих десятилетий жизни в Казахстане он вернулся в освобожденную Корею. Для корё-сарам это событие намного больше, чем официальная церемония. В судьбе генерала отразились боль разлуки, верность Родине и сила людей, сумевших сохранить свою память и достоинство далеко от нее.

Председатель Мемориального общества генерала Хон Бомдо У Вон Сик напомнил, что возвращение генерала стало символом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исторической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Он с благодарностью отметил и позицию корё-сарам, которые в трудные для памяти генерала дни публично защищали его имя и историческое наследие.

На этом знаковом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АКРК, в том числе вице-президент Ан Анна,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Д Цай Полина. Для ассоциации участие в этой памятной дате - важная часть нашей обще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Мы должны сохранять историю корё-сарам и национально-освободительного движения, передавать ее детям, говорить о ней бережно и честно - не только в памятные дни.

Особенно важно, что Мемориальное общество генерала Хон Бомдо и АКРК сегодня продолжают эту работу уже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уровне. Совместно реализуется проект по включению документального наследия корё-сарам в Международный реестр ЮНЕСКО «Память мира». Работа над проектом уже началась: ведётся поиск и изучение документов, связанных с историей корё-сарам в разных странах, формируется международ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Для нас это возможность сохранить не отдельные страницы, а целостную историю корё-сарам — от Приморья и борьбы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до переселения и жизни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 и добиться того, чтобы это наследие было признано частью мировой документальной памяти.

Память о генерале Хон Бомдо — часть этой большой истории. Сохраняя её сегодня, мы передаём следующим поколениям не только память об одном герое, но и историю народа, который вдали от Родины сумел сохранить связь с ней.

(АКРК)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ередача OPCON Сеулу должна завершиться до 2030 года

Передача Сеулу оперативного контроля над своими войсками в военное время (OPCON) должна завершиться не позднее 2030 года. Об этом президент РК Ли Чжэ Мён заявил 18 августа, выступая на заседании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Таким образом,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подтвердил намерение вернуть оперативный контроль над войсками до окончания своего президентского срока в 2030 году. Данный процесс должен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в рамках усилий по дальнейшему укреплению оборонных возможностей в условиях быстрого изменения глобальной ситуации в сфере безопасности. Для подготовки к отражению возможного нападения необходимо воспитывать военных лидеров, имеющих всесторонние оператив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отметил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Он поручил должностным лицам реализовать запланированную интеграцию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трёх родов войск в единую военную академию. Кроме того, президент отметил необходимость ускорить реализацию проект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атомных подводных лодок. Независимые оборон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и прочный альянс Сеула и Вашингтона должны дополнять друг друга,- отметил Ли Чжэ Мён.

Экспорт РК вырос в июле на 63%

Согласно уточнённым данным тамож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опубликованным 18 августа, южнокорейский экспорт составил в июле 99 млрд долларов. Это на 63% больш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тем же периодом прошлого года. Зарубежные поставки растут 14 месяцев подряд, а июльский показатель стал максимальным для данного месяца за всю историю наблюдений. В частности, зарубежные поставки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составили 41 млрд 200 млн долларов. Они увеличились на 176,3%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Экспорт морских судов вырос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на 47,2%, беспроводных устройств связи на 51,2%, автомобилей на 8,4%, а нефтепродуктов на 35,7%. Одновременно экспорт бытовой электроники сократился на 0,7%. Импорт составил в июле 68 млрд 600 млн долларов, что на 26,5% боль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Профицит торгового баланса составил в июле 30 млрд 400 млн долларов.

Архив Сим Хуна вернулся на родину

Личные архивные материалы писателя Сим Хуна вернулись на родину спустя 90 лет после его смерти. В годы японской колониальной оккупации Сим Хун участвовал в движении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и создавал произведения, пронизанные антияпонским национальным духом, включая стихотворение «Когда придёт тот день» и роман «Вечнозелёные деревь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музей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получил в дар от родственников писателя и представил публике 59 артефактов, включая рукописи, фотографии и телеграмму с извещением о его кончине. Архив писателя хранился у родственников Сим Хуна, проживающих в США. Его передал Сим Чжэ Хо, третий сын писателя, который всю жизнь бережно хранил и систематизировал литературное наследие своего отца.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узее, передачу материала родственники сопроводили словами: «Архив отправляется туда, куда ему следует отправиться».

Хон Сан Су и Ким Мин Хи удостоены наград фестиваля в Локарно

Режиссёр Хон Сан Су и актриса Ким Мин Хи получили награды 79-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инофестиваля в швейцарском Локарно за фильм «Некуда деть глаза» (Nowhere to Lay My Eyes / 눈 둘 데가 없네). Хон Сан Су удостоен награды за лучшую режиссуру, а Ким Мин Хи получила награду за лучшую актёрскую работу. Кроме того, Хон Сан Су удостоен приза Экуменического жюри, независимой награды для полнометражных фильмов, присуждаемой жюри в составе критиков и теологов, номинированных католической и протестантской церквями. Данная награда присуждается произведениям высок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качества, которые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о силе кино раскрывать таинственные глубины человеческой натуры. «Некуда деть глаза», 35-й полнометражный фильм Хон Сан Су, рассказывает историю Сан Хи, которая отправляется на остров Чечжудо, чтобы найти свою мать, которую она видела в последний раз 10 лет назад.

В РК более 2.500 случаев ущерба из-за дождей

Как сообщили в центральном штабе по борьбе со стихийными бедствиями и обеспечению безопасности,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6 часов утра 18 августа из-за сильных дождей на юго-востоке страны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ы 2.574 случая повреждений, включая затопление домов и дорог, а также поваленные деревья. Дожди обрушились на провинцию Кёнсан-Намдо и соседние регионы, начиная с 15 августа. Было проведено 2.010 мероприятий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безопасности местного населения, 402 случая поддержки водоснабжения и водоотведения и 162 случая спасательных работ. Стихия привела к гибели одного человека, четыре человека ранены. Смерть и два ранения были вызваны оползнем, обрушившимся на многоквартирный дом в городе Кочжэ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Намдо. 564 человека из 318 домохозяйств были эвакуированы в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Намдо, городе Пусане и на острове Чечжудо. Из них 316 человек вернулись домой. Сред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случаев ущерба также были отключения электроэнергии и перебои в водоснабжении. **RKI**

От Луны до реакторов и квант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Южная Корея обозначила семь драйверов своего будуще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оста

Южная Корея определила семь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направлений, которые должны стать новыми двигателям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оста страны вслед за полупроводниками и искусственным интеллектом. В представленной 12 августа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е нашлось место малым атомным реакторам и термоядерной энергетике, квантовым компьютерам, биотехнологиям и космосу. Одна из наиболее амбициозных целей Сеула - осуществить собственную посадку на Луну уже к 2030 году.

Новая стратегия получила название Seven Major SEED - "семь основных SEED" (от английского seed - семя). Ее представили на заседании по национальной стратегии в области науки и технологий под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м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Ли Чжэ Мёна. Как пояснили власти, речь идет о технологиях, способных обеспечить стране долгосрочную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ь и создать новые отрасли экономики в условиях обостряющегося глобального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соперничества.

В перечень вошли малые модульные атомные реакторы (SMR), термоядерная энергетика, возобновляемая энергетика следующего поколения, квант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космическая и авиационная отрасли, передовые биотехнологии, а также критически важные материалы и технологии обеспечения цепочек поставок. Таким образом,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программы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связана с двумя проблемами, которые Сеул считает стратегическими: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ью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независимостью.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и этом установило по ряду направлений вполне конкретные сроки. В квантовой сфере Южная Корея намерена создать отечественный квантовый компьютер мощностью 100 кубитов к 2029 году. Задача особенно амбициозна с учетом того, что Сеулу приходится догонять США и Китай, значительно раньше начавших масштабные инвестиции в эту область.

Еще более зрелищная цель касается космоса. К 2030 году Южная Корея рассчитывает осуществить посадку на Луну.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Сеул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формирует собственную космическую отрасль: страна освоила запуски спутников при помощи отечественных ракет-носителей и создала Корейское аэрокосмиче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KASA. Теперь правительство хочет перейти от развития отдельных космических технологий к формированию полноценной индустрии, включающей ракеты, спутники, авиацию и исследования дальнего космоса.

Отдельная ставка делается на атомную энергетику. Сеул намерен ускорить разработку малых модульных реакторов, которые значительно компактнее традиционных АЭС и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как один из наиболее перспективных сегментов мирового атомного рынк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оставило задачу добиться коммерциализаци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технологий к середине следующего десятилетия. Параллельно государство собирается инвестировать в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области управляемого термоядерного синтеза.

В биотехнологиях одним из приоритетов станут технологии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человеческого мозга и компьютер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ассчитывает довести некоторые разработки до коммерческого применения примерно к 2035 году. Одновременно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развивать новые лекарства и другие передовые биомедицинские технологии.

Наконец, отдельным направлением программы стали критически важные материалы и цепочки поставок. Для Южной Кореи, экономика которой сильно зависит от импорта сырья и одновременно ориентирована на производство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аккумуляторов, автомобилей и электроники, эта проблема приобрела особое значение на фоне американо-китайского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противостояния и участившихся торговых ограничений.

Министр науки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РК Пэ Гён Хун объяснил выбор семи направлений необходимостью заранее искать новые источники роста после нынешнего бума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и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Перед страной стоит задача создать собственные конкурентные преимущества в технологиях, которые будут определять мировую экономику следующего десятилетия.

В этом отношении Seven Major SEED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не столько отдельную научную программу, сколько попытку определить следующую специализацию южнокорейской экономики. В предыдущие десятилетия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делал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ставки на тяжелую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судостроение, автомобилестроение, электронику, полупроводники, аккумуляторы и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Теперь Сеул пытается заранее определить отрасли, способные повторить этот успех в 2030-х годах.

Сам набор выбран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показывает, что Южная Корея рассчитывает одновременно решать две задачи: зарабатывать на новых глобальных рынках и сокращать стратегическую зависимость от других государств. Поэтому в одном списке оказались и весьма эффектная высадка на Луну, и значительно менее зрелищные, но экономически критические технологии производства материалов и обеспечения цепочек поставок.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Наполни смыслом каждое мгновение»

Тамара Даниленко о народном губернаторе Игоре Фархутдинове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4-ой странице)

Мне довелось видеть Игоря Павловича на разных этапах жизни, и он ни разу не дал повода усомниться в его порядочности. Если пообещал, обязательно сдержит слово. Если не мог выполнить просьбу, так сразу прямо и говорил. Каким он остался в моей памяти? Умён, элегантен, стремителен, горяч. Харизматичный и в то же время весьма жёсткий человек . Пунктуальности у него можно было учиться, как и умению просчитывать на 5 шагов вперёд.

Годы губернаторства Игоря Павловича с 1995 по 2003 годы были самыми благотворными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библиотек. На инаугурации на должность губернатора в апреле 1995 года я подарила ему букет роз со словами: «Игорь Павлович! Ваша дорога будет усыпана в основном не розами, а шипами. Но, если вы выберете дорогу к Храму духовности, то все работники культуры поддержат вас». Он был тронут и, как оказалось, в дальнейшем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ыбрал верную дорогу.

О его особом отношении к библиотекам лучше всего говорят факты: были приняты важнейши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 Закон «О библиотечном дел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грамма по усилению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функции библиотек,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б обязательном экземпляре документ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Фонды нашей област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и одной из первых в стране были оцифрованы. В течение ряда лет мы удостаивались почётного звания «Лучшая библиотека России» в своей категории. Один из последних вкладов губернатора Фархутдинова в укрепление библиотечной системы-помощь в финансировании пушкинского мегапроекта «Сельская библиотека». Это очень дорогой подарок, потому что сельские библиотеки задыхались от дефицита книг. А ведь зачастую это единственный очаг культуры для сельских жителей. Мы обращались к депутатам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искали спонсоров. И, уже почти отчаявшись, я пошла к нему. Деньги были выделены, и библиотека каждого островного села получила комплект прекрасной литературы - учебной,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краеведческой, детской…

Незадолго до последней командировки губернатора в августе 2003 года наши библиографы сделали по его заявке очередную подборку литературы. Он попросил прислать, в том числе, стихи Р. Киплинга. Передавая книги, я отметила закладкой запомнившееся мне стихотворение «Заповедь». Есть в нём строки, в которых, как мне кажется, сконцентрировалась суть недолгой, но такой насыщенной и яркой жизни Игоря Павловича Фархутдинова:

- Наполни смыслом каждое мгновенье,
Часов и дней неумолимый бег,
Тогда весь мир ты примешь во владенье,
Тогда ты будешь Человек!

Из воспоминаний Заслуженного работника культур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четного гражданина гор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мары Даниленко, дирек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и в 1983-2009 годы. (Книга «Игорь Фархутдинов». Сахалинское книж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2005 год)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памят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в годовщину высадки десанта на острове Шумшу

18 августа, в годовщину начала Курильской десантной операци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сетил остров Шумшу. Глава региона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памят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главным из которых стало захоронение на горе Северной останков павшего в боях за освобождение Курил советского солдата.

Курильская десантная операция стала последним подвигом Красной Армии во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е.

— Дорогие земляки! Приближается 81-я годовщина Победы над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ей. В День начала Курильской десантной операции мы находимся на острове Шумшу, где состоялось это решающее сражение. Наши воины-десантники пошли в атаку и сокрушили врага, поставив точку во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е.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мы ведем большую работу по увековечению памяти о подвиге Красной Армии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На Шумшу развернут музей под открытым небом, работает международная поисковая экспедиция. Сегодня мы предали земле неизвестного солдата, останки которого обнаружили поисковики. Это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отдал самое дорогое – свою жизнь, чтобы эта земля стала русской, чтобы мы с вами счастливо жили под мирным небом. Мы не отдадим ни пяди земли, которую завоевали наши предки, - обратился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лава области ознакомился с итогами работы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оисковой экспедиции «По следам Курильского десанта». В этом году на место боевой славы съехались поисковики из 25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Эстон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Они подняли из земли множество артефактов: именные личные вещи бойцов, гранаты-«лимонки», мины от советского миномета, гильзы от винтовок – японской «Арисака» и Мосина.

— Шумшу – это остров героизма. Когда прикасаешься своими руками к предметам быта, оружию, элементам экипировки солдат Красной Армии, которые отдали свою жизнь за наше будущее, испытываешь непередаваемую сопричастность к истории нашей Родины и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то, что мы обязаны ее сохранить, - рассказал участник поисковой экспедиции из Москвы Степан Фадеев.

Впервые в этом году Шумшу посетили Андрей Петрович и Кирилл Шутовы – сын и внук Геро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Петра Ивановича Шутова, под командованием которого 18 августа 1945 года отряд захвата высадился на острове в районе мыса Кокутан-саки и обеспечил условия для маневра передового отряда десанта.

— Мой отец оказался здесь впервые в 79 лет. Я тоже мечтал попасть на Шумшу все свои 49 лет и наконец приехал с поисковым отрядом. Мой дед – Петр Иванович Шутов – герой земли сахалинской, подарил мне книгу, которую я зачитал до дыр. В этой книге отражен подвиг Петра Ильичева, чья могила сейчас находится здесь, прямо передо мной. Ему было 18 лет, когда он погиб, закрыв амбразуру дота своей грудью, вместе с Николаем Вилковым повторив подвиг Александра Матросова. Очень здорово, что на острове Шумшу работаем мы, поисковики, исторический центр восстанавливает доты и радиолокационные станции. Чтобы молодое поколение могло увидеть вживую, что происходило здесь на самом деле, - поделился внук Петра Шутова, участник поисковой экспедиции Кирилл Шутов.

С 2025 года на острове Шумшу создается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ий мемори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аналогов которому нет в России. На его территории развернут музей под открытым небом, где восстанавливают фортификационные сооружения и консервируют трофейную технику. В этом году 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ы РФ и Центр современной истории продолжило работу по сохранению артефактов. Новыми экспонатами музея на Шумшу стали японский артиллерийский тягач, четыре 130-мм артиллерийских орудия Б-13, подземные укрепления, японский пулеметный двухамбразурный бетонный ДОТ и бетонный бронеколпак, железобетонное авиационное укрытие для самолетов.

— На Шумшу сохранились танки, которые нельзя увидеть больше нигде – ни в России, ни в мире. А на юге острова, недалеко от Парамушира, в районе бывшего поселка Байково, находился японский аэродром Катаока. Именно там располагался штаб группировки японских войск, оборонявших остров. В этом месте сохранилось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фрагментов авиатехники, которая после войны была списана или утрачена в катастрофах. Это американские самолеты – истребитель «Кингкобра» и бомбардировщик «Вентура». Они использовались Красной Армией во время войны и после нее. Сейчас техника выставлена в авиационных ангарах, которые также доступны для посещения, - рассказал директор АНО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центр современной истории» Иван Анохин.

В память о событиях на Шумшу центр «Воин»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рганизовал полосу препятствий, имитирующую штурм 171-й высоты советскими войсками. Испытания прошли курсанты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олодеж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Участниками памят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стали молодые активисты со всей России, которые сейчас находятся на острове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Росмолодежи «Больше, чем путешествие», а также ветераны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 Испытываю огромную гордость. То, что нам рассказывали сегодня, ни в одном учебнике не описано. Я очень надеюсь, что история обороны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будет передана будущим поколениям, - поделился ветеран СВО Евгений Толмачев.

По итогам памят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на Шумшу организаторы и их участники были отмечены наградами за вклад в увековечение памяти о Курильской десантной операции 1945 года.

Поруч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выполнено: на Итуруп доставили машину скорой помощи

19 августа в порт Курильска прибыла машина скорой помощи, доставленная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пецтранспорт направлен на Итуруп по поручению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после визита на остров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Напомним, 13 августа остров Итуруп посетил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Во время общения с коллективом сотрудники центральной районной больницы рассказали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замены одной из машин скорой помощи. Губернатор распорядился оперативно предоставить необходимый спецтранспорт.

— Поруч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выполнили оперативно! Сегодня на Итуруп доставили машину скорой помощи, о которой просили местные врачи. Полноприводный «Соболь»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по маршруту Курильск — Рейдово — Горячие Ключи — Горное. Именно такая техника нужна для курильских дорог,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Машина была выбрана из резерва центра скорой помощ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на полностью подготовлена к эксплуатации, прошла технический осмотр и необходимые документальные процедуры.

— С завтрашнего дня готовы запустить машину на линию. У нас работают две бригады скорой помощи, все будут обеспечены транспортом. Передвижение до удаленных сел иногда происходит в сложных климатических условиях – в пургу, по морскому побережью, в приливы, через горную местность. Спецтранспорт должен пройти везде. Доставленная машина – с полным приводом. Это то, что нам надо, - рассказала главный врач Курильской ЦРБ Елена Мацишина.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в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и Курильского района произошли существенные преобразования. В ЦРБ установлен компьютерный томограф,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модернизации первичного звена нацпроекта «Продолжительная и активная жизнь» проведен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кровли, систем отопления и вентиляции в основном корпусе, построена новая амбулатория в Горном.

Транспортная доступность, культурная жизнь и поездки на Шумшу: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вел встречу с жителями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а

Во время диалога были подняты вопросы транспортной доступности, расселения аварийного жилищного фонда, культурн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населения и мер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семей с детьми. Кроме того, жители обратились с просьбой продолжить практику бесплатных поездок на остров Шумшу.

Одной из ключевых тем встречи стала организация вертолетных перевозок. Жители обратили внимание на случаи, когда пассажиры заранее приобретают билеты, но не являются на рейс, в результате чего воздушные суда отправляются в путь с пустыми креслами. При этом в аэропорту остаются люди, которым необходимо попасть в вертолет.

— Министру транспорта ставлю задачу: если люди стоят в аэропорту, а вертолет полупустой, людей нужно забрать. Это же наши люди. Я просто запрещаю так себя вести. Если такие ситуации будут повторяться — виновные будут наказаны, — заяв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Также на встрече подняли вопрос доступности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Один из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рассказал, что из-за отсутствия ряда специалистов пациенты часто получают направления в камчатские больницы. При этом не у всех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оплачивать аренду жилья в Петропавловске-Камчатском на время ожидания госпитализации.

— Хотелось бы, чтобы для таких пациентов предусмотрели какое-то временное размещение, — обратился к губернатору местный житель.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ручил министерству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роработать вопрос повышения доступности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для жителей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а с учетом географической близости к Камчатке.

— Так получилось географически, что вы находитесь ближе к Петропавловску-Камчатскому. Возникает вопрос: как сделать так, чтобы там для наших жителей был необходимый сервис. Поэтому я даю поручение министерству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азобраться, что можно сделать для того, чтобы жители могли получать качественную помощь, — 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

Кроме того, для повышения доступности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и качества услуг в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е увеличат количество визитов мобильных медицинских бригад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 встрече говорилось и о развитии культурной жизни города. Жители предложили сделать регулярными гастроли областных учреждений культуры, в том числе театра и филармонии. По их мнению, разовые выезды не могут в полной мере удовлетворить потребность в культурном досуге. Хорошей традицией могли бы стать гастроли два-три раза в год,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с сентября по май, когда большинство жителей находится в городе. Губернатор инициативу поддержал и поручил министерству культуры проработать вопрос системного проведения таких мероприятий.

Отдельно на встрече обсудили меры поддержки семей с детьми. Так, 2026 год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ъявлен Годом счастливого материнства,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го были введены новые меры помощи. В частности, появи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организовать в детских садах группы кратковременного пребывания.

Жительница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а, воспитывающая нескольких детей, рассказала, что воспользовалась этой мерой и осталась довольна. Она поблагодарила губернатора за эту инициативу и спросила, будет ли продолжено действие мер поддержки в последующие годы.

Губернатор подтвердил, что все действующие инструменты поддержки семей будут продолжены и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Завершилось мероприятие вопросом о бесплатных поездках на остров Шумшу. Эта тема уже поднималась на предыдущей встрече. В текущем году в организованных поездка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150 северокурильчан, однако не все желающие смогли этого сделать из-за погодных условий и совпадения с периодами отпусков и каникул. Жительница, проживающая в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е почти 50 лет и впервые посетившая Шумшу именно благодаря организованной экскурсии, попросила продолжить программу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для тех, кто не успел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ею в текущем сезоне.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заявил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родолжения данной работы и поручил организовать дальнейшие поездки в теплое время года.

Все вопросы, озвученные в ходе встречи, приняты к исполнению профильными ведомствами и находятся на контроле.

Губернатор представил замминистру науки и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РФ проект передового кампуса СахалинТех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науки и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Айрат Гатиятов посетили строительную площадку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центр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Готовность объекта – почти 60 процентов, сдача намечена на 2027 год.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центр – это второй объект передового кампуса СахалинТех, который создается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Молодежь и дети». В двух корпусах общей площадью около 89 тысяч «квадратов» разместят учебные аудитории, большой актовый зал, библиотеку, технопарк с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ми лабораториями, бассейн, спортивные залы и даже оранжерею, открытую для всех желающих.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дчеркнул: кампус должен быть гармонично интегрирован в город и стать его украшением. Через год в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 центре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ести выставку в рамках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форума «Энергия Сахалина».

– Задача амбициозная. К августу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должен быть создан своего рода музей ресурсов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Экспозиция расскажет о природных богатствах, которыми владеет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газ, нефть, уголь, рыба. Из основного зала будут предусмотрены проходы ко всем общественным пространствам комплекса. Необходимо выполнить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и отделочные работы на первых этажах, чтобы эта часть здания – проходы, галереи, общественные зоны – стала частью город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Замминистра науки и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РФ добавил: кампусная программа, реализуемая по поручению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нацелена на то, чтобы студенческие городки были открыты для горожан.

– То, что я вижу на Сахалине, – это пример и целевая модель того, как должны реализовываться все кампусы. Сахалин становится не просто регионом, где хочется оставаться, потому что для этого есть все условия, а регионом, куда хочется приезжать. За это огромная благодарность руководству региона. Развитие и улучшение имуществ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Сахали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 науч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которые здесь находятся, действительно беспрецедентно – такого раньше не было никогда, – отметил Айрат Гатиятов.

На стройплощадке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центра сейчас установлен интенсивный график работ. Трудятся 528 человек, к сентябрю количество рабочих увеличат до 800.

– Все монолитные конструкции уже возведены, полностью выполнена кровля. Сейчас мы активно занимаемся устройством перегородок и уже приступили к черновой отделке: стяжкам, укладке полов, гидроизоляции и другим сопутствующим работам. Параллельно ведется монтаж инженерных систем. К началу отопительного сезона должен быть закрыт тепловой контур. Работы идут в графике. Все возникающие вопросы решаются оперативно благодаря поддержке со стороны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гиона, – рассказал главный инженер компании-генподрядчика «Инвестстрой» Павел Артемов.

Напомним, первый объект кампуса – студенческий городок на 1500 мест – был сдан в конце 2025 года. Для ребят созданы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 жилые блоки на две комнаты, в каждом есть санузел, душевая и кухня. Также в распоряжении ребят кафе, тренажерный зал, прачечная и студенческая резиденция для отдыха и подготовки к занятиям.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김경협 청장, 광복의 역사 함께한 고려인 동포 선조 기리고, 후손들 삶 살펴...

재외동포청장, 광복절 앞두고 망향의 동산 참배 후
충남 지역 고려인동포 간담회
아산시장 만나 고려인동포 정착 현안 및 중앙-지방 협력방안 논의
【관련 국정과제】 123.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 (국내 체류 동포 지원 강화)

재외동포청 김경협 청장은 광복 81주년을 앞두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함께한 고려인동포 선조들의 헌신을 되새기고, 고국으로 돌아온 후손들이 겪고 있는 정착의 어려움을 살폈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13일 김 청장이 충남 지역을 찾아 국립 망향의 동산을 참배하고, 국내에 정착한 고려인동포들을 만나 생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전했다.

※ 국립망향의동산은 과거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으로 고국을 떠나 망국의 서러움과 갖은고난속에서 고향을 그리며 숨진 재일동포를 비롯한 해외동포 영령들의 안식을 위해조성된 곳임. 일본 위안부 피해자, 재일학도의용군, 사할린영주귀국자 등 일제강점기에 강제 동원되었다가 돌아오신 분과 무연고 동포들의 안신처이기도 함

김 청장은 먼저 망향의 동산을 찾아 해외에서 생을 마친 재외동포 영령들을 추모하고, 고국과 동포사회를 위해 헌신한 선조들의 뜻을 기렸다.

고려인동포는 일제강점기 연해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하며 조국의 광복에 힘을 보탰다. 이후 강제이주 등 고난의 시절을 겪었으며, 오늘날 많은 고려인동포와 후손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다.

이어 김 청장은 대한고려인협회 충남지부 관계자와 충남지역 고려인동포들을 만나 고국에서 생활하며 겪고 있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참석자들은 ▲ 국내 체류와 정착과정의 어려움, ▲ 한국어 교육과 자녀 교육, ▲ 취업·직업교육, ▲ 지역사회 적응과 사회통합 등 고려인동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안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건의했다.

김 청장은 "고려인동포 선조들은 나라를 잃었던 시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을 보탰고, 그 역사는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와 맞닿아 있다"며 "광복절을 맞아 선조들의 헌신을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온 후손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피는 것도 국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가한 귀환동포들은 비자, 영주권, 건강보험 등에 대한 제도 개선 요청과 함께, 지역 내 동포들이 생활 및 정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동포통합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후 김 청장은 오세현 아산시장을 만나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과제를 살펴보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동포청은 국내 귀환동포의 실질적인 정착이 실제 생활공간인 지역사회에서 이뤄지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 아산시와의 논의를 계기로 지역 특성과 동포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 기반 정착지원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재외동포청 제공)

'문학으로 일제에 저항한 독립운동가' 조명희 선생

재외동포청, 2026년 8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故조명희 선생 선정
연해주 망명 후에도 우리말과 문학으로 고려인사회의 민족 정체성 지켜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문학으로 일제에 맞서 싸우고, 연해주에서 우리말과 문학을 통해 고려인사회의 민족 정체성을 지키는 데 힘쓴 포석(抱石) 조명희(1894-1938) 선생을 2026년 8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894년 충북 진천에서 태어난 조명희 선생은 3·1 운동에 참여하고, 의권단에서 활동하는 등 독립운동에 나섰으며, 이후 문학을 통해 일제강점기의 현실과 민족의 아픔을 알렸다.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가동맹(KAPF)의 주요 작가로 활동한 선생은 1927년 대표작 〈낙동강〉을 발표했다. 이 작품에서 일제의 수탈로 고통받는 민중의 삶과 이에 맞서는 지식인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며 식민지 현실을 비판했다.

일제의 탄압을 피해 1928년 연해주로 망명한 뒤에도 선생의 문학과 독립운동은 계속됐다.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 등에서 신문 〈선봉〉의 편집자로 활동하며 후배 문인들의 작품활동을 도왔고, 동포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학을 가르치며 우리말과 민족 정체성을 이어가는 데 힘썼다.

또한 산문시 〈짓밟힌 고려〉 등을 발표해 타국에서 살아가야 했던 동포들의 삶과 아픔을 문학으로 기록하며 고려인 문학의 토대를 쌓았다.

조명희 선생은 1937년 스탈린 체제의 대숙청 과정에서 '일본의 첩자'라는 누명을 쓰고 체포돼 이듬해인 1938년 5월 총살됐다.

이후, 1956년 소련 당국에 의해 명예가 회복됐으며, 우리 정부는 독립운동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해 2019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조명희 선생은 조국을 떠난 뒤에도 문학을 통해 시대의 아픔을 기록하고 동포들과 함께한 독립운동가였다"며, "광복절을 맞아 조명희 선생의 삶과 작품을 다시 돌아보고, 그 속에 담긴 나라와 동포에 대한 마음을 함께 기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재외동포청, 중앙아시아 최초로 한글학교 교사 연수 개최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중앙아 첫 전체 연수 개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3개국 교사 82명 참여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2026 중앙아시아 한글학교 교사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재외동포청이 주알마티총영사관 및 카자흐스탄 한글학교협의회와 함께 개최한 이번 연수에는 카자흐스탄 한글학교 교사 48명을 비롯하여,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교사 34명 등 총 3개국 82명이 참가했다.

이번 연수는 중앙아시아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열린 최초의 한글학교 교사 역량강화 연수로 고려인 교사와 한인 교사가 한 자리에서 교육 경험을 나누고 교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알마티한국교육원에서 진행한 이번 연수에서는 그림·전통문화·놀이·율동·요리 등을 활용한 다양한 한국어 교수법을 익히고, 중앙아시아 역사 및 교양 강의를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재외동포청 사업 설명회와 교사 간담회도 열렸다. 한글학교 관련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양질의 교사 수급과 맞춤형 교재 개발 등 교육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연수 마지막 날에는 각국의 한글학교 운영 현황과 교육 사례를 공유하고, 교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민과 경험을 나눴다.

카자흐스탄한글학교 협의회 김영미 회장은 "중앙아시아 지역 협의회 부재로 그동안 중앙아 지역 교사들이 함께하는 연수 기회가 없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들의 수업 역량을 키우고 교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라면서 "앞으로 동포청에서 이런 연수 기회를 더 많이 마련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경협 청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은 우리 동포 역사에서 매우 특별한 지역으로, 한글학교 교사들이 연수를 통해 얻은 배움과 교류가 중앙아시아 지역 고려인들과 차세대 동포들의 정체성 함양 교육에 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재외동포청이 한글학교와 함께 현지에서 개최하는 '한글학교 교육공동체 역량강화 연수'는 작년 미국에서 두 차례 개최한 데 이어 올해에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연수를 시작으로 10월과 11월 일본 관서, 관동 지역에서도 열릴 예정이다.

(재외동포청 제공)

이모저모

(2면의 계속)

대규모 환경정화 활동에 100명 이상이 참가한 가운데 노인자원봉사자들을 비롯해 사할린 지역 환경보호부 및 주 두마의 직원들, 사할린 수도국의 전문가들과 사회기금 및 러시아 농업은행의 대표들,

'청년 수비대' 활동가들, 전국 청각장애인협회 사할린 지부 회원들, 지역 폐기물처리업체 직원들과 관심을 가진 주민들이 합세해 활동을 펼쳤다.

숍보트닉 참가자들의 공동 활동으로 2시간 만에 1km 강변 부근의 쓰레기를 모두 수거한 양은 10m³에 달했다. 수거된 쓰레기는 신속하게 운반돼 쓰레기 분류, 처리 및 매립과정을 거치기 위해 '이즈웨스트코븨' 쓰레기처리장으로 보냈다.

이번 숍보트닉(토요 청소)은 사할린에 자연환경 개선에 따른 체계적 활동의 한 부분이다.

주최 측은 연방차원 및 지역차원 자연환경보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러한 정비작업을 향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Более 100 человек очистили берег реки Еланьк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кт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ла большая экологическая акция по уборке прибрежной территории и акватории реки Еланька. Субботник организовали министерство экологии и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месте с АО «Управление по обращению с отходами»,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управления.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вели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Вода России» нацпроекта «Экологическое благополучие», который инициировал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К масштабной уборке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более 100 человек. Среди участников были серебряные волонтеры, сотрудник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экологии и областной Думы, специалисты компании «РВК-Сахалин»,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оцфонда, Россельхозбанка, активисты «Молодой Гвардии», члены Сахалин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глухих, работник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ператора по обращению с отходами и неравнодушные жители города.

Всего за два часа совместной работы активисты полностью очистили от хлама около одного километра береговой линии. В итоге участники собрали 10 кубических метров отходов. Весь этот мусор оперативно загрузили и направили на полигон «Известковый» для дальнейшей сортировки, обработки и захоронения.

Этот субботник стал частью системной работы по улучшению экологии на Сахалине.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дтвердили, что продолжат проводить такие уборки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ых и региональных природоохранных программ.

〈꿀의 구원〉을 주제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박람회 열어

8월 14일 유즈노사할린스크 워그잘나야 거리 71번지에서 〈꿀의 구원〉를 주제로 전통 꿀 박람회 및 장터가 열렸다. 행사의 주인공은 바로 꿀과 다른 벌꿀제품이다. 사할린의 양봉가뿐만 아니라 알타이, 부랴티야, 연해주 등 기타 다른 지역들의 양봉가들이 생산한 제품들도 박람회에 나왔다.

식품자원 및 소비시장청의 루슬란 세메니힌 직무대행은 이번 장터에서 지역 생산자들이 직접 생산한 폭넓은 다양한 제품들이 제공되었다며 "장터에서는 꿀과 함께 육류와 생선제품 및 '오스트로브나야' 양계장이 생산한 달걀, 지역 생산의 열매들과 채소들도 가판대에 올랐다."고 전했다.

장터에는 과수 재배농의 과일 묘목과 사할린에서 생산된 다양한 식물성 기름, 기념품도 만나볼 수 있었다. 또한 솥에서 퍼내는 플로브, 샤슬릭, 향긋한 도너츠를 맛보며

아이스크림과 얼음이 든 음료로 더위를 식힐 수 있었고, 사할린 예술단의 공연이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유즈노사할린시크 시민들은 이러한 형태의 장터를 매우

선호하고 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타치야나 아유포와 시민은 "나는 한 곳에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제품을 살 수 있었고 물론 가격도 더 적당했다. 내 생각에 이런 장터는 구매자에게나 판매자에게나 또한 도시에도 유리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과 도시 방문객들을 기다리는 다음 주제별 장터는 〈오스트로브 릐바(섬 – 생선)〉축제의 일환으로 9월5일에 개최된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ла тематическая ярмарка «Медовый Спас»

14 августа, в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е на площадке по адресу: Вокзальная, 71 состоялась уже ставшая традиционной ярмарка, посвященная Медовому Спасу.

Конечно, главным героем мероприятия стал мед и другие продукты пчеловодства. Причем не только от сахалинских пасечников, но и от пчеловодов с Алтая, из Бурятии, Приморья и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Как рассказал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директора департамента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ых ресурсов и потребительского рынка Руслан Семенихин, на ярмарке в широком ассортименте представлена продукция местных товаро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Помимо мёда на ярмарке сегодня можно приобрести мясную и рыбную продукцию, яйцо и птицу от птицефабрики „Островная“, а также овощи и ягоды от местны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 отметил Руслан Семенихин.

На ярмарке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саженцы плодовых кустарников, разнообразные растительные масла от сахалински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сувениры.

Здесь же можно было попробовать плов из казана, шашлык, ароматную выпечку, охладиться мороженым и напитками со льдом. А праздничную атмосферу создавали выступ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артистов.

Подобный формат торговли очень востребован у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Я в одном месте смогла приобрести все, что мне необходимо, и, конечно же, цены здесь более приемлемые. Я считаю это выгодно и покупателям, и продавцам, и городу», — поделилась жительница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Татьяна Аюпова.

Ближайшая тематическая ярмарка, на которой ждут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и гостей города, состоится уже 5 сентября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Остров-рыба».

(러시아 및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RADIX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ое полугодие 2026 г.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47 руб. 6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싣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윅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3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